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새해감사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 경배의 찬송	46.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 아침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압복강 나루에서 사투를 벌인 야곱이 브니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절망과 무기력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차오릅니다. 말갭게 씻긴 해가 수평선 너머에서 얼굴을 내밀 듯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해맑게 웃으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평화의 숲이 되어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산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17:7-8
◆ 교 독 문	67. 신년 예배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성경봉독	마5:9, 엡2:14-18
찬 양	성가대
말 씬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58. 아침 해가 돋을 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묵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1,3)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주고, 막힌 곳은 뚫어 통하게 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선물로 부여받은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마음을 밝히며, 복의 매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하얀 눈발 위를 걸어가듯 조심조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청신한 새벽바람처럼 불어와 우리를 깨워주소서.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임원헌신예배	1월 기도의 밤
말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최인환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유영남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 극	배상순	곽권희	정진경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한상익	문복순	최숙화	오성희

절대의 믿음

● 믿음은 자득하는 것,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만일 가르쳐 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는가? 또 자식이 부모에게 구해다가 바칠 수도 없다. 구해다 주어서 되는 것이라면 어느 자식이 부모가 믿음 없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만 보고 있기만 하겠는가? 믿어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버려도 내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다. 사람 가르치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으셨던 공자님도 “분이 나서 하지 않거든 가르쳐 주지 마라”고 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 것도 이러한 뜻이 있다. 거룩한 것 자체, 진주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그 받는 개나 돼지를 위해서도 그렇다. 오늘날 종교가 힘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리의 전달이지 진리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절대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 위에서 주시어서 받아서 되는 믿음, 상대의 믿음은 믿자는 믿음, 믿어질 줄을 믿고 힘쓰는 믿음이다. 사람이 누구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 믿자는 믿음이지. “주여, 내가 믿으니 내 믿음의 부족함을 도우소서!” 이대로 사실이다. 그러나 믿자는 믿음만으로는 또 아니 된다. 종당엔 믿어지는 믿음에 가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도 잤다 할 수 없다.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벌써 타락이다. 믿어지는 믿음은 믿는 줄도 모르는 믿음이다. 거기서 가서는 가지는 것이 아니요, 가지 못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는 곳이다. 가지 못함으로 가는 감이다.

● 우리는, 믿는 자는, 그러한 멸망의 운명을 가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회의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인생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순이 있어도, 어떤 고난

이 있어도, 어떤 과란이 있어도 긍정한다. 믿고 들어간다. 세계는 존재할 만한 의미가 있고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역사는 지을 만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잃어도 잃지 않는 줄 알고, 패해도 패 아닌 줄 알고 죽어도 죽지 않는 줄 안다. 그리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다.

-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새로남의 체험 없이 인격의 보다 높은 새 통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새로남의 체험에 없어서 아니 되는 중요한 요소는 속죄의 체험이다. 지난날이 잘못됐다는 의식이 남아 있는 한은 새로남은 없고 인격은 항상 분열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죄가 씻어져 버렸다는 확신에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오고 새 영감에 차게 된다.

-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인을 깨닫는 일이다. 하나님의 씨를 보는 일이다. 이것은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고 타락해도 더러워지지 않는 생명이다.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죽는 것은 ‘참 나’가 아니요 나의 과피과육(果皮果肉)을 나로 알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숭아의 껍질과 살을 달라는 대로 아낌없이 주고, 속의 씨를 찾아내듯이 나의 ‘참 나’ 아닌 부분을 잃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절대자와 동질이요 한 모습인 ‘참 나’를 발견하고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요 해탈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타락한 개인이라도 이 인은 품고 있고 어떻게 더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도 이 인은 남아 있다. 자가개조(자아개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 누구나 다 속에 생명의 씨를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대로 되는 사랑의 원리를 품고 있지만, 또 거기에 악한 것도 같이 있다. 그걸 어떻게 공부해서 내 속에서 그 악한 뿌리를 아주 잘라 버리고, 참 사랑의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인 그 생명으로 바로 설 수가 있을까.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인데.....참 어려운 일이다.

- 진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체험은 몸으로 앎이다. 몸으로 하기 전엔 참이 아니다. 마음이 옹근[統一] 것이 함[行動]이요, 함이 맺힌 것이 몸이다.

(함석헌)

■ 마/음/으/조/읽/는/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이 아니라 가난을 요구하십니다.

- 가급적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하십시오.
- 일신상의 문제를 잘 돌보십시오.
- 호기심을 피하십시오.
-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 모순된 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 남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 부당한 비난도 받아들이십시오.
- 양보하여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십시오.
- 모욕과 폄박을 받아들이십시오.
- 버림받고 잊혀지고 경멸받았다는 느낌을 받아들이십시오.
-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십시오.
-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 자기의 존엄성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논쟁을 삼가하십시오.
- 언제나 가장 힘든 일을 택하십시오.

(마더 테레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오진훈 노순옥 안종일 정현주 홍순구 안홍숙 백승민 이광용
 형인순 김근종 정옥영 김애경 박성수 김용진 최영혜 김시영 이은옥
 김인걸 문영혜 안정숙 박영희 노용해 박규석 박경선 윤석철 장혜숙
 최인환 김재흥 최희영 한완식 임정자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주원 최윤선 이지훈 이동천 왕수명 배삼순 권미정
 전영규 김경수 김성자 김창운 정지은 김승현 김수진 노미향

감사헌금:

황경순 김주현 한상익 정영선 김정길 최숙화 박수민 김영한 이희균
 김흥기 문금석 나오미선교회 남상욱 호영민 광권희 박병선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희우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침	침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새해** :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 이루소서.
2. **임원헌신예배** : 오늘 오후 집회는 임원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해주십시오.
3.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5일(월)부터 7일(목)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M.Y.F.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년부는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장년부는 저녁시간도 있습니다.
4. **기도의 밤** : 7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1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5. **속장인도자교육** :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속장과 인도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1월 12일, 13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의무금봉헌** :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2004년도 1년 동안 우리가 봉헌할 의무헌금을 작성하여 봉헌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7. **구역회** :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감리사님을 모신 가운데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8. **신앙실천** : 금주 중에는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여 마태복음서를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헌화 - 홍순구 안홍숙 (홍지희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